2025. 2. 24

소비재/플랫폼 Weekly

월마트도 불안한 미국 소비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꼭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월마트 4Q 실적 양호, 가이던스는 기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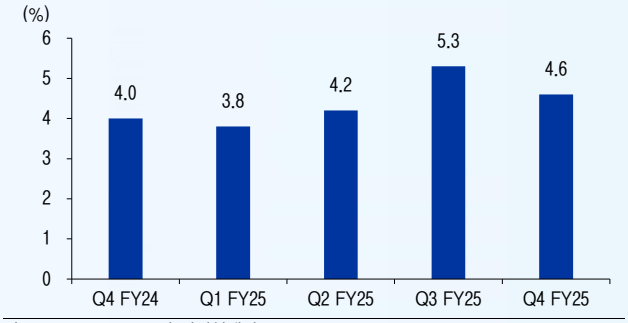
월마트는 FY2025 4Q 실적을 발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이커머스와 광고 부문도 성장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그러나 FY2026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 후 주가는 6.5% 하락. 월마트는 전망에 관세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전체 판매 제품의 약 1/3이 수입품이므로 향후 실적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

✓ 주요 소비재 업체들 가이던스 하향

월마트의 가이던스는 미국 소비 둔화를 시사하며, 실제로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소매판매 부진과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는 중. 아마존, 뉴웰 브랜즈, 타겟, 치폴레 등 주요 소비재 업체들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소비 둔화를 반영. 이에 향후 관세 영향과 거시 경제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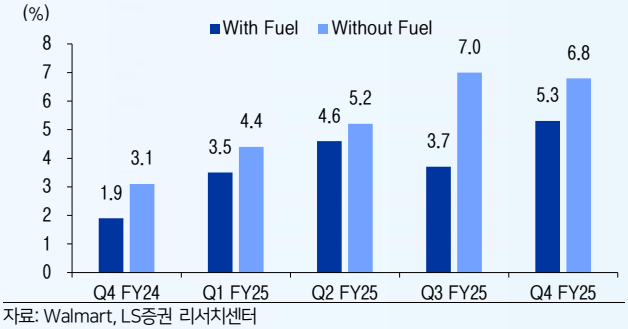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월마트 U.S.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Walmart,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샘스클럽 U.S.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Walmart, LS증권 리서치센터

월마트 4Q 실적 양호, 가이던스는 기대 이하

월마트는 2월 20일 FY2025 4Q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806억 달러, 영업이익은 8.3% 증가한 79억 달러, EPS는 66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 기존점 신장률은 4.6%, 객수와 객단가는 각각 2.8%, 1.8% 증가했고, 이커머스 부문은 Marketplace 거래가 34% 증가. 광고 부문도 24% 성장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임. 다만 FY2026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 후 주가는 6.5% 하락. 월마트는 2025년 연간 매출 성장률을 3~4%로 제시했으며, EPS 전망도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2.5~2.6달러로 발표. 더불어 월마트는 어닝스콜에서 월마트는 전망에 관세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실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 참고로 월마트 제품의 약 1/3이 수입품

주요 소비재 업체들 가이던스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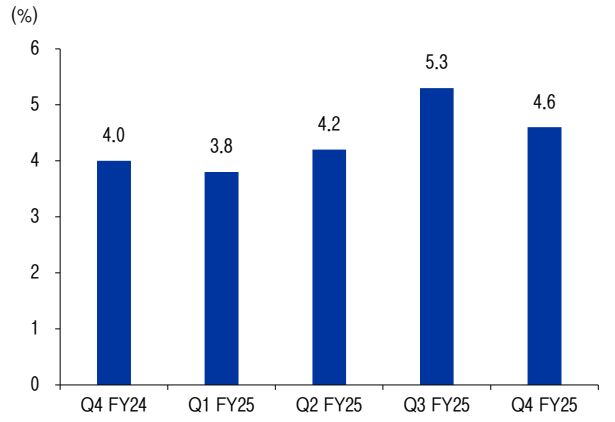
월마트의 가이던스는 미국 소비 둔화를 시사하며, 소비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 2025년 1월 소매판매는 예상보다 부진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중.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주요 소비재 업체들도 실적 발표 후 우려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는 상황. 아마존은 2024년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2025년 사상 최저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 뉴웰 브랜즈는 2025년 매출 감소를 전망했고, 타겟은 3분기 실적 쇼크 이후 4분기에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유지. 치폴레는 2025년 기존점 신장률 가이던스를 한자릿수 초중반대로 제시하며 성장 둔화를 반영 중. 향후 관세 영향과 거시 경제 변수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음

월마트도 불안한 미국 소비

월마트 4Q 실적: 양호했지만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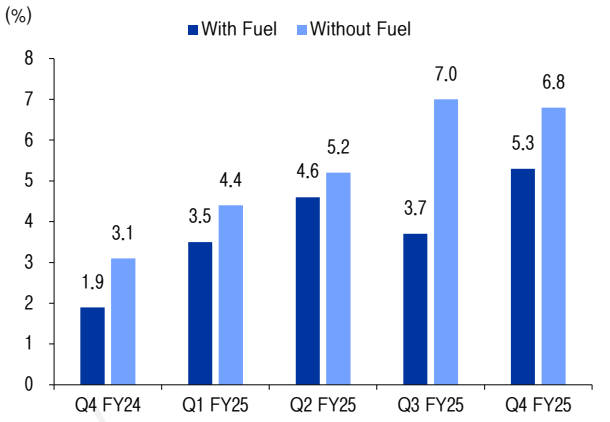
월마트가 지난 2월 20일(현지 시간) FY2025 4Q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806억달러,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3% 상승한 79억달러, EPS는 66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을 보였다. 캘리포니아 산불과 이상 추위에 따른 타격이 있었지만, 기존점 신장률은 4.6%를 기록했고 객수와 객단가도 각각 2.8%, 1.8% 증가했다. 이커머스 부문은 점포 풀필먼트 확대에 따라 거래 부문(Marketplace)에서 34% 증가했고, 광고 또한 24% 신장하면서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참고로 연간으로도 광고 부문은 27% 성장, 이커머스 거래 부문은 37% 성장하면서 양호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6.5% 수준 하락했는데, FY 2026 전망과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 대비 낮게 제시한 것에 기인한다.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4% 수준 성장을 제시했으며 연간 EPS 또한 시장 예상치인 2.76달러 대비 내려잡은 2.5~2.6달러로 제시했다. 어닝스콜에서 중요한 부분은, 월마트가 전망에 관세 관련 잠재적 영향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월마트 판매 제품의 1/3은 수입품이다.

그림1 **월마트 U.S.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Walmart,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샘스클럽 U.S.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Walmart, LS증권 리서치센터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소비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월마트의 금번 가이던스는 미국의 소비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5년 1월 소매판매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대비 0.9% 하락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0.2% 대비 부진한 수치였다. 더불어 2025년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3.0%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주요 소비재 업체들의 금번 실적 발표 시기 양호했던 실적과 달리 우려스러운 가이던스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아마존은 2024년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2025년 전망은 사상 최저 성장 가이던스인 매출액 5~9% 성장 수준을 제시했다. 뉴웰 브랜즈는 2025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타겟은 3분기 실적 쇼크와 함께 4분기에도(11월~1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다. 치폴레 또한 2025년 기존점 신장률 가이던스를 한자릿수 초중반대로 공유했다. 최근 주요 소비재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서 미국 소비 경기의 불확실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관세 영향 및 거시 경제 변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3	2024E	2025E	2023	2024E	2025E
코스피	2,655	21,761,753	2.5	5.4	7.0	-1.7	0.1	10.6	-	-	-	-	-	-
코스피 대형주	2,649	18,112,348	2.5	5.5	6.8	-2.0	0.3	10.9	-	-	-	-	-	-
코스닥	775	3,926,024	2.4	6.7	13.8	-0.7	-10.4	14.2	-	-	-	-	-	-
코스피 중형주	2,956	2,596,018	2.8	6.2	9.2	0.4	2.5	11.2	-	-	-	-	-	-
코스피 소형주	2,202	871,923	2.5	2.3	4.7	-3.9	-6.9	5.2	-	-	-	-	-	-
유통														
코웨이	82,700	60,010	1.1	2.7	30.4	31.7	46.6	23.6	9.0	10.2	9.8	1.6	1.9	1.7
호텔신라	41,800	16,406	5.4	6.4	6.9	-12.6	-31.8	13.3	30.4	-287.1	41.1	4.1	2.7	2.1
BGF 리테일	106,700	18,442	1.9	1.0	-2.4	-2.6	-17.9	4.1	11.6	9.6	8.7	2.1	1.6	1.4
GS 리테일	15,990	13,369	5.9	-0.1	-26.1	-23.5	-30.0	-3.1	136.5	28.0	8.2	0.6	0.3	0.3
롯데쇼핑	66,000	18,671	14.6	23.1	13.2	8.6	-18.6	22.0	12.2	32.5	8.4	0.2	0.2	0.1
신세계	149,000	14,669	9.8	11.6	15.0	1.2	-19.7	12.0	7.7	7.0	6.5	0.4	0.3	0.3
이마트	78,100	21,771	9.2	19.2	24.8	25.2	3.3	23.2	-24.0	-227.5	14.5	0.2	0.2	0.2
현대백화점	57,600	13,034	12.7	17.6	34.7	24.4	5.7	21.9	-15.2	139.9	6.2	0.3	0.3	0.3
SK 네트웍스	4,535	10,035	2.3	7.9	2.5	-5.5	-31.5	9.3	-1,933.6	8.8	15.9	0.5	0.4	0.4
인터넷														
NAVER	226,500	358,860	2.5	10.8	19.4	44.8	11.9	13.9	36.3	20.6	19.1	1.5	1.4	1.3
카카오	39,900	177,026	3.0	9.5	13.5	9.0	-31.2	4.5	-23.9	55.9	44.1	2.4	1.7	1.7
게임														
넷마블	46,900	40,312	1.4	1.2	-5.4	-20.8	-26.1	-9.3	-19.5	24.2	24.4	1.0	0.8	0.8
엔씨소프트	177,700	39,012	2.8	0.0	-16.6	-7.3	-14.8	-3.0	24.9	116.8	22.5	1.5	1.1	1.0
펄어비스	33,200	21,330	1.2	17.1	-16.8	-17.8	-1.6	19.9	163.7	361.5	16.9	3.3	2.8	2.3
카카오게임즈	16,470	13,648	2.9	0.1	2.7	-4.4	-34.0	0.6	-9.3	-72.6	59.4	1.5	1.0	1.0
더블유게임즈	49,550	10,651	-0.3	-4.2	2.2	5.4	2.0	-8.1	5.8	6.3	6.1	0.9	1.0	0.8
NHN	20,350	6,871	10.5	10.4	19.2	3.5	-28.7	15.3	-96.3	-8.3	12.5	0.5	0.4	0.4
웹젠	13,850	4,841	-0.9	1.1	-7.7	-26.2	-22.8	1.0	9.9	8.4	8.0	0.8	0.6	0.6
컴투스	46,950	5,980	0.8	3.3	10.0	22.1	1.7	1.0	15.9	58.0	16.4	0.5	0.5	0.5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19,200	69,723	0.1	-3.0	9.6	-1.6	-6.1	13.7	55.6	11.9	24.9	2.0	1.5	1.5
LG 생활건강	330,000	51,540	6.8	10.9	5.1	-2.5	-0.6	8.2	44.1	20.7	21.2	1.1	1.0	1.0
실리콘투	33,800	20,676	9.2	0.6	27.1	-19.9	225.0	3.4	12.2	16.9	12.4	3.5	8.0	4.9
아모레 G	22,100	18,223	0.9	-7.9	0.7	-11.1	-23.8	6.3	23.5	7.4	0.0	0.8	0.5	0.0
한국콜마	58,800	13,880	0.9	-5.8	10.7	-10.9	20.0	6.7	236.2	18.8	12.5	1.9	1.9	1.7
코스맥스	161,200	18,295	5.8	-4.2	23.7	33.4	40.4	8.1	25.1	19.8	15.0	4.0	4.1	3.2
브이티	37,050	13,263	9.3	3.2	22.5	20.9	105.3	-7.4	21.0	15.8	13.0	5.0	6.6	4.4
코스메카코리아	47,300	5,052	-6.5	-16.0	-11.1	-41.4	13.7	-14.5	17.4	12.2	9.4	2.3	2.4	1.9
씨앤씨인터내셔널	38,450	3,850	3.6	-5.4	3.1	-61.6	-46.0	-15.9	19.9	12.2	10.1	3.6	1.9	1.6
클리오	19,600	3,542	5.1	7.2	14.4	-38.5	-34.7	14.0	20.1	n/a	n/a	2.5	n/a	n/a
한국화장품제조	48,700	2,207	9.1	2.3	-4.5	-30.0	108.1	-5.8	14.6	n/a	n/a	1.6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23,350	4,026	-8.1	-4.1	31.9	-4.9	36.3	24.9	11.3	12.9	11.2	3.3	4.0	3.0
마녀공장	18,870	3,091	14.3	5.2	16.0	-18.5	-16.0	29.2	30.0	n/a	n/a	3.8	n/a	n/a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5.2.21 종가 기준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2.4%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7.6%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 1 ~ 2024.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